

“코로나 시대도 복날은 온다”...역대급 ‘보양대전’

**맛집보다가정 보양식 인기
유통업계, 품질·안전성 ↑**

‘보양의 계절’ 복날이 올해도 어김 없이 찾아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양식을 찾는 이들이 그 어느 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삼계탕·민물장어 등 소문난맛집마다 손님들로 북적였던 풍경은 보기 힘들지도 모른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기피하는 현상에 가정에서 보양식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품질과 안전성을 높인 간편식과 신선재료, 대규모 기획전을 잇따라 선보이며 ‘보양대전’에 나선 채비를 마쳤다.

◇ “복날엔 당연히 보양식”...올해는 ‘엔택트’가 대세

11일 티몬에 따르면, 고객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복날에 보양식을 챙겨 먹는다’는 응답이 86%에 달했다. 보양식을 먹는 방법으로는 ‘집에서 먹겠다’는 응답이 51%로 가장 높았다.

가장 선호하는 음식은 전통적인 복날 인기 메뉴인 삼계탕(73%)이다. 그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 부담이 없어서”(37%),

“몸보신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37%)였다. ‘엔택트’와 함께, ‘가격’과 ‘보신 효과’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인 셈이다.

실제 G마켓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할인 프로모션에 나선 보양 식품·재료들의 판매가 급격히 늘었다. 대표적으로 한우는 6월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106% 판매가 증가했다. 오리 고기 또한 80% 늘었다.

특히 해산물의 인기가 급상승했다. G마켓의 전복 판매는 전년 동기보다 171%, 갈치는 175%, 장어 124%, 낙지는 119% 증가했다. 업체마다 할인행사에 나서고 있는 킹크랩·바닷가재 판매량도 97% 늘었다.

G마켓 관계자는 “수산물의 판매 증가율이 더 높았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육류 가격이 많이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 “복날 특수 잡아라”...이커머스, 대대적 기획전

이에 이커머스 업체는 저렴하면서도 보신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식품들과 함께 특별 기획전을 경쟁하듯 내놓으며 ‘복날 대전’에 나서고 있다.

G마켓과 옥션은 오는 24일까지 ‘썸머푸드 쿨세일’을 진행한다. 27개 대형 식품 제조사와 9000여곳의 식품 생산·판매 셀러가 참여하는 연중 최대규모 행사다.

행사기간 동안 다양한 인기 식품을 최대 60% 할인가에 판매한다. 특히 초복을



맞아 ‘하림 즉석삼계탕’(800g 3봉)을 2만 1000원, ‘노르웨이산 생 연어 필렛’을 혜택가 2만2900원, ‘이워를 닭한마리 고려삼계탕’을 혜택가 1만5410원에 판매한다.

SSG닷컴은 13일부터 19일까지 복날 음식 대전 ‘2020 복수열전’ 기획전을 진행한다. 가정간편식(HMR)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HMR 보양식 상품 20여종을 최대 37%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대표 상품인 ‘올날 삼계탕 진’(3팩)은 16% 할인한 1만9900원, ‘중가집 삼계탕’ 33% 할인한 6580원에 선보인다.

티몬은 소비자들이 집에서 간편하게 보양식과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선무류반포판’ 운영을 시작했다. 과일야채·정육·수산물 등 우수 품질의 신선식품만을 엄선해, 고객이 품질에 만



족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비용 부담 없이 반포할 수 있는 특별매장이다.

◇ “퀄리티·편의성, 우리도 자신있...”...오프라인 매장들도 대거 출격

대형매장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들도 대대적 가격할인과 퀄리티·편의성을 높인 즉석식품을 내세워 ‘엔택트 강자’들과 경쟁에 나선다.

롯데마트는 여름철 보양식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보양식 대전’을 15일까지 진행한다. 행사기간 동안 ‘동물복지 닭볶음탕’과 ‘동물복지 닭백숙’을 옐포인트(L.POINT) 회원 대상 30% 할인된 5950원에 판매한다.

‘간편 삼계탕 12봉’ 20%, ‘호주산 소고기 인기부위’는 최대 35% 할인하며, ‘완도 전복’과 ‘힘찬 손질 민물장어’를

40% 할인된 9900원, 3만4800원에 각각 판매한다.

이마트는 전통 보양식인 삼계탕을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대형마트 최초로 ‘무항생제 영계’를 선보였다. 두마리 제품을 행사카드 결제 시 20% 할인한 5584원에 판매한다.

또 대구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쌍둥이 영계백숙’을 16% 할인한 9,980원에 판매한다. 국산 활 전복(100g)은 행사카드 결제 시 50%, 장어는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30% 할인 판매한다. ‘피코크 삼계탕 3종’ 역시 행사카드 구매 시 20% 할인 판매한다.

GS25 편의점은 ‘오리덕에든든한도시락’, ‘계(鷄)든든한’ 매콤찜닭과 초계국수 등 ‘호보신족’을 위한 보양식품을 잇따라 내놓아 눈길을 끈다. 뉴스1

다주택자 이번에는 집 팔까...“억소리나는 양도세에 매물 글썽”

서울 3주택자 내년 보유세 올해보다 1억5000만원 ↑...보유세 증가분보다 양도세 부담 더 커

다주택자 증부세 최대 6%상향

○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구간별 1.2%~6.0% 세율 적용

시 가* (다주택자 기준)	구 분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개정
		연령	12.16	연령	12.16	
8~12.2억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15.4억	3~6억	0.7	0.8	0.9	1.2	1.6
15.4~23.3억	6~12억	1.0	1.2	1.3	1.6	2.2
23.3~69억	12~50억	1.4	1.6	1.8	2.0	3.6
69~123.5억	50~94억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공시가격 인실화율 75~85%, 공시시정가액비율 95% 적용
○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증가 최고세율 6% 적용
*법인 주택 증부세, 기본공제 6억원 & 세부담 상한 미적용

정부가 최고 세율 6%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를 더 옥죄는 내용이다.

이제 관심은 정부 의도대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지 여부다.

10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증부세율이 현행 3.2%에서 최고 6%까지 인상된다. 최저세율도 0.6%에서 1.2%로 2배 오른다.

증부세 강화에 보유세 역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퍼파크’(전용 112㎡)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2020년 7548만원에서 2021년 1억699만원으로 900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0% 인상할 것이라는 가정에 나온 추산이다.

여기에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까지 지닌 3주택자의 보유세는 같은 기간 1억726만원에서 2억5717만원으로 1억5000만원 가까이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팀장은 “보유세 부담 증가가 역대급”이라며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보유

세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업계는 증부세 강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로 집을 내놓을 다주택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폭 늘어난 보유세보다 매매에 따른 양도세의 과세 부담이 더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날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기본세율 6~42%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30%p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 시기를 2021년 6월1일 이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약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6월1일부터 양도세 강화안을 적용한다”며 “이를 고려해(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매각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도 양도세 증가세율은 10%~20%p에 달해 적용 유예가 다주택자에게 큰 의미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팀장은 “연간 보유세가 수천만원 늘 수 있으나, 양도세는 수억원 단위”라며 “지금도 증가세율이 낮지 않아 증부세 강화에 따른 다주택자 매물 출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들이 매매보다는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합병진 지방 빅데이터랩장은 “증여세의 최고 세율이 50%로 현행 3주택 양도세 증가세율보다 낮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도 6억원”이라며 “매각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다.

최이슬 기자



목적이는 동행세일 마지막 날 ‘대한민국 동행세일’ 마지막 날인 1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마련된 롯데아울렛 서울역점 매장에 동행세일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소비 심리 진작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이날 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17일간 진행됐다.

“3분기 제조업 경기 2분기보다 악화...매출·수출도 부진 전망”

산업연구원, BSI 전망 지표

車·일반기계·화학 등 동반 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수그러들지 않은 가운데 국내 제조업체들은 이번 3분기 경기가 지난 2분기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KIET)이 6월 8일~19일 100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3분기 시황 전망은 84, 매출은 85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경기실사지수는 0~200 범위에서 산출되는데 100이면 전 분기 대비 변화 없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증가(개선)를, 예 근접할수록 감소(악화)를 의미한다.

3분기 제조업 전체 시황 전망은 지난 2분기와 같았지만 매출 전망은 3포인트 하락했다. 내수(84) 전망지수와 수출(84)도 전 분기보다 각각 3포인트, 4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수출 전망지수는 1분기(94)→2분기(87)→3분기(84)에 걸쳐 갈수록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96), 고용(96) 역시 전분기 대비 1포인트씩 떨어졌다.

업종 부문과 기업 규모별로 3분기 매출 전망지수는 양극화를 보였다.

기계부문(76)과 소재부문(78)은 70대 후반대로 극히 저조한 반면, 정보통신기술(2분기 92→3분기 97), 신산업(84→95)은 2분기보다 크게 상승했다.

중소기업은 3분기 81로 전분기 대비 2포인트 하락한 반면, 대기업은 3분기 92로 전분기 대비 2포인트 올랐다.

세부 업종별로 3분기 매출 전망지수를 보면 무선통신기기(111)·2차전지(100)·정유(100) 업종이 100 이상으로 매출 호조를 전망했다.

하지만 자동차(68)와 화학(75)은 전분기보다 11포인트, 21포인트씩 크게 하락했다. 조선(75), 철강(57) 역시 고전이 예상된다.

정승호 기자

직장인 올해 여름휴가 평균 3.8일...“기업 절반 이상 휴가비 못 준다”

경총, 751개社 ‘하계휴가 실태조사’

올해 여름 직장인들의 휴가 일수는 평균 3.8일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휴가비를 지급하는 기업은 줄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인 이상 751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하계휴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하계휴가 기간은 지난해(3.7일)와 거의 유사한 평균 3.8일로 집계됐다. 올해 하계휴가 일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기업은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6.4%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은 ‘5일 이상’이라는 응답이 58.0%로 가장 높았고, 300인 미만은 ‘3일’이 51.2%로 높게 나

타났다.

또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48.4%가 올해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해 지난해 지급기업 비중 대비 6.1%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이 3.9%p(60.6%→56.7%) 감소했고, 300인 미만은 6.6%p(53.2%→46.6%) 줄었다.